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28)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부활 제 4 주일(성소 주일)

오늘은 부활 제 4 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샘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의 앞날을 성자의 권능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생명의 샘으로 이끄시는 좋은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제1독서

사도 13,14.43-52

• 입당송 시편 33(32),5-6 참조

• 화답송 시편 100(99),1-2.3.5(◎3ㄷ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묵시 7,9.14ㄴ-17

• 복음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0,27-30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성소 주일을 맞은 교회를 굵어살피시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고자 준비하는 모든 이가 믿음과 열정을 간직하며, 각자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여러 종교와 문화 속에 얽혀 있는 인류를 굵어보시어, 서로 갈등에 맞서지 않고, 소통과 화합으로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3. 스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스승으로 불리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굵어 살피시어,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데 충실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 영성체송

[아캠] 제 25차 아캠 상임위 정기 회의 결과

중 동 한 인
AKCCME 가 톨릭
공 동 체



- ▶ 대 상 :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 시 : 5월 3일 (토) 20시 (UAE 기준)
- ▶ 주요내용: 공동체 별 활동 보고 및 계획, 성모성월 특강 등

※ 자세한 내용은 아캠 카페(<http://cafe.daum.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캠] 온라인 성모성월 특강

- ▶ 일 시 : 5월 17일 (토), 16시 (UAE 시간)
- ▶ 강 사 : 손은경 데레사 수녀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아부다비] 온라인 한국어 견진 교리



아부다비 공동체 견진 교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 이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5월 12일 (월) ~ 16일 (금) 20시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바티칸] 제267대 교황 선출 콘클라베 시작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5월 7일 오후 3시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역대 최다인 133명의 추기경이 참석하였으며, 투표는 선거인 단의 2/3이상(89명)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투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 지붕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흰 연기는 선 출 성공을 의미합니다. 5월 중순 즈음이면 새 교황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콘클라 베에 참가하는 추기경단을 위해 기도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 교황님 5월 기도 지향

5월: 노동 환경

노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성취감을 얻고 가정이 품위를 유지하며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부다비 공동체> 주일학교 어버이날 기념 영상 편지 상영



5 월 3 일 12:00 pm

2025 어버이날 영상편지

<두바이 공동체> 주일학교 어린이날 행사



5 월 4 일 11:00 am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16> 성모님을 알고 사랑해요

성모님을 알면 알수록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모님은 화가 났을 때에도, 기가 막힌 일 앞에서도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그저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 하셨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도 안에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육체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셨으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심으로써 기쁨과 행복도 컸겠지만 고통과 슬픔도 크셨을 것입니다. 성모님이 겪으신 고통, 우리는 그것을 '성모칠고'라고 합니다.

성모 칠고(七苦)

: 성모 마리아께서 겪으신 7가지 슬픔과 고통

1. 시메온의 예언으로 인한 고통(아들 예수님은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성모님 마음은 칼에 찔리는 아픔을 느낄 것이란 예언)(루카 2,34-36)
2. 이집트 피난의 고통(마태 2,13-21)
3.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음(예루살렘 순례길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인한 고통)(루카 2,41-50)
4.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남(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심으로 인한 고통)(요한 19,17)
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한 고통(요한 19,18-30)
6. 예수님 시신을 품에 안으심(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으로 인한 고통)(요한 19,39-40)
7.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내심(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한 고통)(요한 19,40-42)

파스카 축제 기간을 맞아 성모님과 요셉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축제 기간 후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을 때 불안함으로 가슴을 요동치고 심장은 떨리며 머릿 속은 하얗게 되고,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지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생각을 가다듬고 예루살렘 곳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성모님은 치솟는 화를 인내하며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계셨던 성모님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크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십자가 밑에서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에 영적 죽음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예수님 부활과 승리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실 때엔 고통도 있었지만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모 칠락(七樂)'이라고 합니다.

성모 칠락(七樂)

: 성모 마리아의 일생에서 7가지 기쁨

1. 성모 영보(주님 탄생 예고: 성모 마리아가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들으셨다.)
2. 엘리사벳을 방문하심(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에 아드님 또한 복되시다)
3. 예수님 탄생하심
4. 예수님의 공현(공적으로 드러나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세상에 드러남)
5.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심
6. 예수님께서 부활 하심
7. 성모님 승천하심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희망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수비아코

글: 공지영 마리아(작가)

산골에 집을 짓고 살기로 마음 먹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설렘은 정원과 내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었고, 두려움은 고립과 어둠 때문이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이탈리아 수비아코다.

수비아코. 베네딕토 성인이 로마로 유학을 왔다가, 당시 로마의 타락과 세속화, 부패, 이민족들의 방탕한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고 혼자 떠난 곳이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 대목을 설명할 때, '평양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베네딕토가 서울로 공부하러 왔다가 환멸을 느끼고 하느님을 찾아 강원도 정선의 어느 동굴로 떠났다' 쪽으로 설명한다.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신부님께 여쭙어보니 대충 비슷하다고 하셨다. 나는 오래도록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에 하느님 공부를 하러 왔던 베네딕토는 왜 그리로 갔을까.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들이 제 일 많은 곳이 로마인데. 누가 '하느님이 많이 계신 곳(?) 이 어디지' 하고 물으면, 세상 천지에 로마가 그 대답이 아닌가 말이다. 젊은 날의 나였다면 유럽 문화 재건협의회나 기독교 문화 되살리기 운동 본부 같은 데 가입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말이다.

어쨌든 십여 년 전 나도 수비아코로 갔다. 로마에서 동쪽으로 73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수도원기행2」에도 썼지만, 그곳은 산세가 만만치 않아 가는 길이 약간 험했다. 지금도 그러할진대, 베네딕토 성인이 살았던 당시는 어떨까 싶었다. 아름답고 웅장한 몬테 카시노를 보고 오는 길이라, '굳이 가야 할까' 생각도 있었다. 게다가 가을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저녁은 빨리 내렸고, 수비아코는 스산했다. 나는 베네딕토 성인이 살았던 동굴을 돌아보며 그 어둠을 상상했다. 지금 방문해도 어둡고 춥고 스산한 곳, 베네딕토는 대체 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내가 산골로 가기로 마음먹고 집이 완성되었을 때 폭풍우 치거나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밤, 나는 베네딕토를 생각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혼자 시편을 외우며 하느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그를 ... 신기하게도 그러면 이 어둠이 두렵지 않았고 비바람 치는 밤이 안온했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내 주변의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며 '대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았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인 성녀가 안 계시니 그렇구나' 싶었던 것이다. 비바람 치는 산골에서 나는 수비아코의 베네딕토를 생각한다. 교회에 실망할 때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생각한다. 죽음이 두려울 때는 십자가의 성 요한을, 늙음과 쇠약을 두려워할 때는 성 프란치스코를 ... 그들은 가까운 곳에 사는 우리의 만형 누나들같이 구체적인 등불이 되어 주신다. 늘 생각하지만, 인간은 밥 한 그릇 때문에 동료를 적에게 밀고할 수도 있고,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리하지 않겠다며 목숨을 내놓는 엄청난 존재이다. 우리 안의 그 엄청난 신성을 늘 일깨워 주시는 성인 성녀가 계심에 오늘도 감사한다.

참 그리하여 1500년 후 베네딕토 성인은 유럽 문화의 수호자로 선포된다. 무슨 무슨 운동 본부에 가입하지 않고도 결국 로마를 타락으로부터 지켜내고 마는 것이다. 이 무슨 기발하고 멋진 결과란 말인가. 지난밤 이곳은 비바람이 거셌다. 나는 시편 127편을 읽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은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눕도 ... 헛되리라."

소금 한 꼬집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안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